

“사회 실질적 변화 선도” 한국씨티은행 ‘참여형 사회공헌’ 활동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·씽크머니 등 운영



1 한국씨티은행 ‘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’ 자원봉사 활동 2 한국씨티은행-한국해비타트 ‘희망의 집짓기’ 봉사활동

한국씨티은행은 ‘참여형·장기적·선도적’ 사회공헌이라는 세 가지 운영 원칙을 가지고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.

한국씨티은행은 단순한 기부금 전달이 아닌 ‘자선 이상의 기여’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자 역량 있는 비영리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.

또 임직원의 자발적 재능기부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한국 사회에 대한 공헌을 확대했다.

2006년부터 전 세계 씨티은행 임직원 및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펼쳐 온 ‘씨티 글로벌 지역 사회 공헌의 날’을 비롯해 기업으로는 처음 한

국해비타트와 손잡고 1998년부터 전국 주요 중소도시 무주택 서민을 위한 ‘희망의 집짓기’ 캠페인을 했다.

아울러 2006년부터 약 58만 명 청소년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한 ‘씽크머니’,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해 각각 2001년과 2006년부터 운영 중인 ‘이화-씨티 글로벌금융 아카데미’와 ‘씨타-경희대 NGO 인턴십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.

특히 임직원이 강사 또는 멘토로 참여하는 이화-씨티 글로벌금융 아카데미, 씨타-경희대 NGO 인턴십, 씽크머니와 특성화고 역량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인재 및 건강한 시민사회 리더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.

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‘회복과 재생’(Recovery and Renewal)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‘지역사회 공헌의 날’ 자원봉사 활동을 벌인다. 취약계층 지원 활동, 환경보전 및 다양성 활동으로 나뉜 임직원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게 했다.

씨티은행 관계자는 “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기획하고 진행했다”며 “앞으로도 기업 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 성장과 발전에 지속해서 기여하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 ▼

